

우리들의 마음건강 이야기

회 복 하 기

'마음의 병'은 마음속의 걱정 때문에 생기는 병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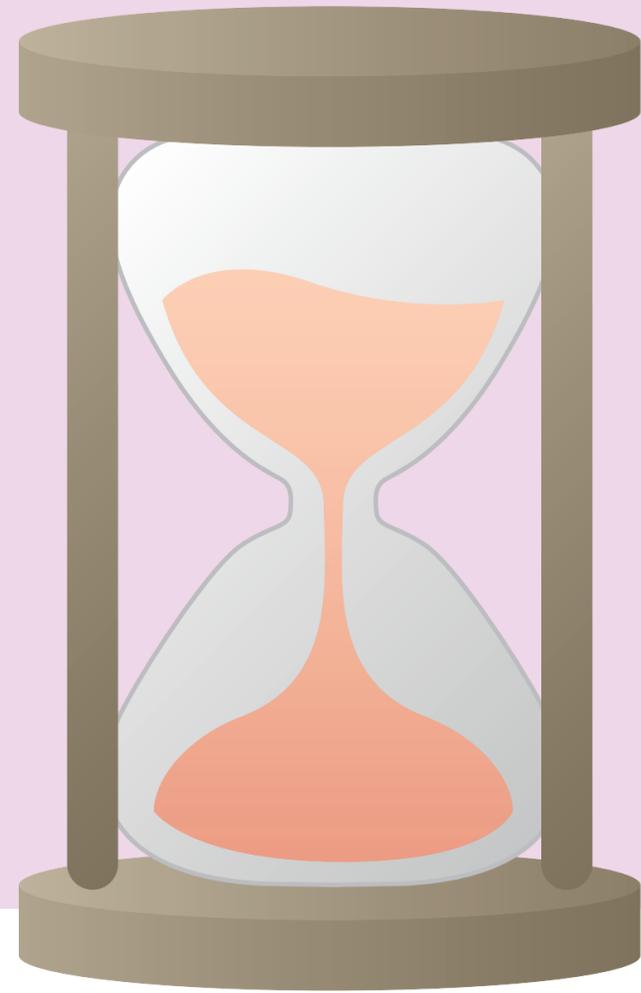
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.

마음의 병은 흔하지만, 혼자만의 힘으로는 극복이 어렵기도 해요.

그래서 주변에서 **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.**

내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.





마음의 병은 누가 잘못하거나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.
급한 마음으로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,
시간을 두고 천천히 좋아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.



친구에게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고 직접 물어보세요.

친한 친구가 '죽고 싶다' 라고 말하며 비밀로 해달라고 해도
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즉시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설득해야
 합니다.

인터넷(앱, 소셜 미디어 등)에서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.

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다가오지만, 실제로는 친구들을 이용하거나, 잘못된 정보를 알려 주는 경우가 많아요. 오히려 친구를 더 힘들게 하거나, 위험한 행동을 함께 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.

믿을 수 있는 경우

- ◎ 부모님
- ◎ 학교 선생님
- ◎ 위 클래스 선생님
- ◎ 의사 선생님
- ◎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전화 등

조심해야 하는 경우

- ✗ SNS나 앱을 통해서 알게 된 어른
- ✗ 부모에게 비밀로 하자며 다가오는 어른
- ✗ 신체 사진이나 접촉을 요구하는 어른
- ✗ SNS에서 만난 친구들 모임
(잘못된 정보로 더 위험한 일에 빠질 수 있음)



만약 친구가 상담이나 병원 치료를 받게 된다면, 잘 받도록 격려해 주세요. 학교에서 과제나 준비물을 알려 주거나, 같이 밥을 먹거나, 이야기를 나누는 것, 그 친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해보는 것 등은 친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

마음 건강 상담이 가능한 곳이 어디에 있나요?



학교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

- 위 클래스(Wee Class)



학교 외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

- 교육청 위 센터(Wee Center)
- 지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, 정신건강복지센터
- 지역의 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



전화나 문자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

- 청소년 상담 전화 1388, 청소년 모바일 상담 '다들어줄개'

본 카드뉴스는 교육부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에 의뢰하여 제작한 “우리들의 마음건강 이야기” 9호입니다.